



9월 국내 · 외 리콜현황 및 정책동향

국내 · 외 리콜현황

	한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21건(강제 19건, 자발 2건) - 공산품 18건, 전기용품 3건 		EU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137건(강제 115건, 자발 22건) - 공산품 109건, 전기용품 28건
	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22건(자발 22건) - 공산품 15건, 전기용품 7건 		호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14건 - 공산품 10건, 전기용품 4건
	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20건(자발 20건) - 공산품 15건, 전기용품 5건 		뉴질랜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7건(자발 7건) - 공산품 2건, 전기용품 5건
	캐나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17건(자발 17건) - 공산품 10건, 전기용품 7건 			

주요 사례

국가	제품명	제조사	리콜방법	리콜구분	리콜 주요원인
한국	선동기	(주)엘디	수거, 교환	강제적 리콜	- 절연 파괴 및 불꽃 발생, 부품 임의 변경 - 모델명: LD-B801
미국	자전거	Cycling Sports Group Inc.,	수리	자발적 리콜	-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소비자 낙상 우려 - 모델명: GM0046, GM0211
일본	유아용 카시트	주식회사 CAR MATE	교환	자발적 리콜	- 벨트에 부적합 소재 사용으로 강도가 미달하여 충돌 시 기능 충족 미달 - 모델명: ALC460
캐나다	형광등기구	Peachtree Lighting, Inc.	사용 중지	자발적 리콜	- 과열 및 전선 단락
EU (키프로스)	커피 메이커	BAUMANN/ ALICE	시장 제품 회수	강제적 리콜	- 특정시간 이상 작동시 액체가 넘쳐 화상 위험 - 저전압지침 및 EN60335 불이행 - 모델명: ST-862, COB-120
호주	유아용 침대	Frank Masons Pty Ltd	환불	-	- 호주강제안전기준 AS/NZS 2172:2003 '가정용 유아침대의 안전 및 성능요건' 불이행 - 유아가 침대에 끼어 갇힐 수 있음 - 모델명: BC-026
뉴질랜드	플러그 어댑터	Phonak NZ Ltd	교환	자발적 리콜	- 전류 부품이 노출되어 감전 위험 - 모델명: 미상



제품안전 정책동향

독일, 전력 변압기 에코디자인 적용 EU548/2014 발표

□ 독일, 전력 변압기 에코 디자인 적용 EU 548/2014 발표

- '14년 7월 1일부터 에코 디자인이 적용된 전력 변압기만 설치 가능
- 현재 유럽에 설치된 전력 변압기는 약 360만개('11년 기준)로, '25년까지 470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, 보편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이나 사용 연수가 30년이 넘으며 에너지 절약 시간이 몇 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- 이에 따라 전력 절약 및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 신규 에코 디자인 법령 발표
- EU의 에코 디자인 규정의 품목 · 대상이 확대될 예정에 따라 요구되는 제품 기술 및 제한 역시 까다로워질 전망이다
- ▶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
- 제조 · 설치되는 전력 변압기 제품에 대한 규정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최대로 하며 이산화탄소를 최소화

일본 NITE, 스마트폰 충전 커넥터 사고 경고

□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(NITE)는 24일, 스마트폰, 태블릿 디바이스의 충전용 커넥터에 의한 사고가 최근 5년간('09년~'13년) 48건 보고되었다고 발표

- ▶ NITE가 제시한 충전 커넥터 사고의 원인
- ① 단자 부분의 납땜 불량 등 제품에서 기인한 것
- ② 사용자의 오사용이나 부주의
 - 충전용 커넥터의 상하를 뒤집은 채 역지로 스마트폰에 꽂아서 커넥터가 변형되어 이상 발열을 일으킨 경우
 - 충전용 커넥터 내부에 땀, 음료수, 먼지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 단자 간 쇼트되어 이상 발열을 일으킨 경우 등
- ▶ 사고 사례를 피해 상황별로 분류한 결과 (총 48건)
 - 경상 10건 / 주위 확대 피해 25건 / 제품 파손 13건
 - 중대 피해에 이른 사례는 없으나 모두 발연, 발열, 발화를 동반한 만큼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

호주, 유아용 침대 및 유모차 안전기준 검토

□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(ACCC), 어린이제품 공급업체에 유아용 침대, 유모차, 2단 침대에 대한 강제 안전기준 개정 알림

- 해당 제품군의 사용자는 취약층인 어린이와 유아이므로, 강제기준은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유지 및 상해 위험 최소화를 위한 중대 수단으로 작용함
- ACCC, 관련 자발표준(호주 표준)에 대한 변경사항의 강제 안전규정 채택 필요성 검토 중

□ 협의회, 최근 제품 이슈 및 개발사항에 대한 의견 취합 중

- 유모차 : 손가락 끼임 문제 및 안정성(특히 제품에 다양한 부착물 추가 시) 문제
- 유아용 침대 : 난간 강도 시험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검토되며, 2단 침대는 제품 사용 및 유용성 관련 제품 설계 변화
- 이 외에도 제안된 변경사항이 제품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진행 예정

□ 강제기준 개정은 시장에서 위해제품을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한 ACCC의 노력을 뒷받침함

- ACCC, 강제기준 대상인 어린이제품들에 대한 종합적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적극 지속 예정
- 협의문 등 자세한 사항은 ACCC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



제품 위해 뉴스

제품 위해 뉴스 - 국내자료

☞ 냉난방기기로 인한 화재

뉴스스 등

'14.7.11 등

- 대구 동구 소재의 한 상가에서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
- 서울 중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선풍기가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인근 주민 30여명 긴급 대피/7명이 연기를 마셔 후송)
- 부산지하철 1호선 시청역 근처에서 전동차 에어컨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(5명 부상)
- 전북 익산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인명 피해 없음)
- 울산 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형 공장 베란다에서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1명 부상)
- 경기 안양시 소재의 한 빌라에서 선풍기의 전기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1,150만원의 재산 피해)
-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주택에서 선풍기의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500만원의 재산 피해)
- 부산 영도구 소재의 한 옥탑방에서 벽걸이 선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32만원의 재산 피해)
-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9층 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90여명 긴급 대피)
- 제주 서귀포시 소재의 한 단란주점에서 에어컨이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230만원의 재산 피해)
- 충남 서천군 소재의 한 주택에서 선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

☞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

울산매일 등

'14.7.21 등

- 울산 남구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천장 설치형 DVD 플레이어가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150만원의 재산 피해)
- 대구 북구 소재의 경북대학교 농대 1호관 연구실의 콩 건조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30만원의 재산 피해)
- 서울 금천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세탁기가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130만원의 재산 피해)
- 울산 동구 소재의 울산과학대 인근 아산에 소재한 컨테이너(약재 탕비실)에서 냉장고가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1,000만원의 재산 피해)
- 대구 북구 소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금속 도금기계의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130만원의 재산 피해)
-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냉장고 내부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600만원의 재산 피해)
-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지하 노래방에서 노래방 내부 모니터의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

☞ 할인마트 노후된 쇼핑카트 안전사고 부른다

세계일보 등

'14.7.11

- 할인마트에서 사용되는 쇼핑카트, 관리 소홀 등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
 - 땀질로 접합된 구조물 중 일부가 분리되거나, 바퀴가 심하게 흔들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
 - 쇼핑카트 사고 건수 : '06년 52건→'10년 125건(증가추세)
 - 사고 피해자 중 0~3세 영유아가 44%를 차지

☞ 폭발위험 큰 위조 건전지 판매 30대 구속

SBS 등

'14.7.23

- 정품 건전지보다 발화·폭발 위험이 큰 위조 카메라 건전지(중국산) 판매업자 구속
 - 일본의 C사, N사 상표가 부착된 위조 건전지 총 228점(정품 시가 1,500만원) 압수
 - 리튬 이온 건전지의 특성상 안전 보호회로 등의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폭발 위험이 높음
- 특허권 관계자,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 위조 카메라 건전지의 폭발 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들어 기획 수사 강화 의지 표명



☞ 지구 한 바퀴 감을 불량전선 4만km나 전국 유통 경인일보 등 '14.8.6 등

- 110억원 상당의 불량 전선 제조업체 및 중간 유통상 40명 적발
 - 알루미늄에 구리를 씌운 일명 CCA(Copper Clad Aluminium)를 재료로 20억원 상당 불량 전선 제조
 - 통신선 등 일부에만 사용해야 하는 CCA를 전선으로 사용할 경우 구리 전선보다 도체 저항이 높아 화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
 - 인증 규격 자체가 없는 굵기의 전선 90억원 상당을 임의 제조
 - 중간 유통상, 해당 제품이 불법 제품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나 보다 싸게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

제품 위해 뉴스 - 국외자료

☞ 버튼형 배터리 오식사고 방지 방법 Wooris '14.7.19

- 리모콘, 탁상시계, 타이머, 아동용 장난감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버튼형 건전지를 영유아가 삼킬 경우 식도에 구멍이 뚫리는 등 전치 2개월 상당의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음.
- 일본 국민생활센터 및 소비자청의 발표에 따르면 '10년 4월부터 '14년 3월까지 아동의 버튼형 건전지 삼킴 사고가 90건 이상에 달함. 버튼형 배터리는 평평하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삼킬 경우 식도 벽에 달라붙기 쉬워 주의를 요함.
- 버튼형 배터리의 사용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, 특히 장난감에 사용되는 전지 교환용 뚜껑은 테이프 등으로 고정시켜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. 또한 다 사용한 배터리를 한데 모아둘 경우 건전지끼리의 접촉으로 인해 방전을 일으켜 발열·파열·발화 우려가 있으므로 다 사용한 배터리는 테이프 등으로 감은 후에 버리도록 할 것.

☞ 파나소닉, 급탕기 103만대 리콜 교도통신 등 '14.7.25

- 파나소닉은 25일, 히트 펌프식 급탕기(에코 큐브) 약 103만대의 리콜 실시 발표.
- 압축기가 파열되어 커버 등의 부품이 튀어 오를 우려가 있으므로 무상 점검·수리 예정.
- 이바라기, 효고, 시마네 등 세 지역의 주택에서 총 5건의 사고발생(인명피해 없음)
- 대상 제품은 '03년 11월~'13년 1월의 기간 동안 제조된 총 208기종으로 지금까지의 전체 출하 대수의 약 90%에 달함.
- <내셔널> <파나소닉> 브랜드 97만 8,317대
- <코로나> <유리치> 브랜드 5만 3,270대 등

☞ 삼성전자 갤럭시S4 배터리 폭발 전자신문 등 '14.8.5

- 7월 27일, 미국 텍사스주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4 배터리 화재발생
- 소비자는 새벽에 스마트폰 알람을 끄려던 중 베개 밑에 놓아둔 갤럭시S4에 불이 붙으며 주변 침구류가 탄 것을 발견
 - 소비자는 발화원이 부풀어 오른 갤럭시S4 배터리로 주장
 - 삼성 대변인, 해당 배터리가 삼성 정품이 아니라 교체품이었던 것을 지적하고, 피해자의 스마트폰 및 침대 매트리스·베개를 새 것으로 교체해 줌

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간 제품안전 동향